

# ‘파업 몸살’ 광주기독교병원 직장폐쇄 강행

### 시설 용역업체 직원 동원 한때 파업 참가자 출입 제지도 병원측 “진료 차질 최소화” 노조 반발 “24시간 농성 계속” 지역민들 조속 정상화 촉구



1일 오후 광주기독교병원 내 로비를 점거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조별로 모여 앞으로의 행동 등에 관해 회의를 하고 있다.

파업 한달을 넘기고 있는 광주기독교병원 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병원 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대립 일변도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기독교병원의 노조와 경영진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노조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동 관법상 허용된 행위일지라도, 의료기관의 장기 파업은 병원의 공공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광주기독교병원과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교병원지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30일 밤 9시부터 파업 종료까지 병원 모든 시설에 대한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병원 측은 공지에서 “부득이하게 9월 30일 밤 9시를 기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광주기독교병원의 출입을 금한다”며 “파업 참가자들이 병원 병동·주차장·식당·장례식장 등을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즉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전남 바부터 사설 용역업체 직원 6명을 동원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갔다. 이후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출입구 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출입 통제를 해제했

다. 병원 측은 최용수 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이후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해 환자들의 치료와 병원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파업 미참가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직원은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병원도 이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파업 기간에도 직원들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직장폐쇄라는 무리수로 조합원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직장폐쇄는 노조의 요구를 절대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전장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합원 대응 지침을 통해 로비농성장에서 24시간 농성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한편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내담병원, 조산대병원과 함께 지역 3대 거점병원으로 꼽히는 기독교병원이 초유

의 사태를 맞아 기존 병원 이용자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기독교병원과 비슷한 규모였던 목포성골분당병원이 지난 2002년 경영 악화와 구조 조정 실패, 노조의 장기 파업까지 겹치며 폐업한 사례를 들어 광주기독교병원에 폐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병원 노조는 올해 단체임금협상에서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4%를 요구했고, 병원 측은 92.5%를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과속 적발 최다지점은 무진대로 SK텔레콤앞

광주 지역 과속 적발 최다지점은 무진대로 SK텔레콤앞(하남 80m도로·무안방향) 이고, 전남은 나주 초등학교 후문 인근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까지 광주에서 가장 적발이 많은 지점은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SK텔레콤앞으로 총 6827건에 달했다. 이어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앞(광주방면)이 5513건, 구남동주 SK이파트앞(송원대→풍암IC)이 4555건, 서구 삼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광천터미널방면)이 4295건, 북구 오동동 과학기술원 후문입구(북광주IC→진곡산단)가 40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나주시 송월동 나주초등학교 후문(엘지화학→남고문) 지점이 같은 기간 2만357건 단속돼 1위를 기록했다. 여수시 용천동 754-3 용천생태터널앞(용천동→시청)이 1만1428건,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토지초등학교앞(구례→하동)이 7854건, 나주시 문명면 안곡리(고막원→문평IC)이 6781건,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초등학교앞(영산포→외국어고)이 5579건을 기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학교 80% 이상이 스프링클러 없어

교육위 김혜영 의원 지적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80% 이상이 화재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학교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44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은 78곳(17.6%)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 전체 학교 1328곳 중 168곳(12.6%)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국 평균 설치율인 21.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는 공립유치원 129곳 가운데 10곳(7.75%)에 불과했고, 전남은 특수학교 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혜영 의원은 '화재 시 여전히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학교 화재 안전시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완도 잠수사 사망사고 '사실상 人災'

### 완도해경, 위탁 받은 민간잠수사 1인 잠수 관리·감독 방치

#### '2인 1개조' 원칙 지켰어아

완도해양경찰이 구조업무를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겼다가 발생한 사망사고(광주일보 9월 30일자 6면)는 '사실상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은 자체 지침에 따라 '2인 1개조' 잠수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해경 잠수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잠수사의 1인 잠수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 없었다는 이유로 방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완도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0시 10분께 완도를 망나리남 서쪽 3km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표류 중이던 선장 강모(61)의 구조 신고가 완도해경 상황실에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구조 현장으로 보냈으나 인명에 관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장에게 민간잠수사를 연결해 줬으며, 선장은 개인비용까지 들여 잠수사 4명을 섭외했다. 이날 새벽 3시 2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민간잠수사 4명 중 A(49)씨가 어망 제거 작업을 위해 단독으로 물속에 들어갔

으나 30여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사고를 직감한 동료 잠수사 B(47)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입수해 의식을 잃은 A씨를 건져 올렸다. 병원이송 끝에 숨진 A씨는 당시 홀로 침묵 같이 검은 새벽 바다에 들어간 뒤 어망에 몸이 얽혀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2인 1개조' 잠수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경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의 경우잠수 업무시 이른바 '씩잠수'라고 불리는 2인 1개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경의 업무를 위탁 받아 그달방 제거 작업을 벌인 민간잠수사 역시 2인 1개조 작업 원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 군인, 민간잠수사 구분 없이 2인 1개조 작업 원칙이 지켜졌다. 한 민간잠수사는 "이번 사망 사고 당시 물살이 거세고 새벽 시간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만약 2인 1개조를 이뤄 작업을 실시했다면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최출판본부방

## 오늘 노인의 날... 암울한 전남 노인들

### 10만명 당 독거노인 2만6000명 전국 최고...학대도 매년 늘어

10월 2일은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을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노인의 날' 행사와 예정돼 있지만, 노인들의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독거노인 수는 노인인구 10만 명 기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수는 10만1000여 명, 광주는 3만6000여 명으로 집계됐

다. 특히 전남은 노인인구 10만 명 당 2만6000명의 독거노인 수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1만9000여 명을 웃돌았다. 광주는 같은 기준 1만9000여 명의 독거노인 수를 기록했다.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14년 245건, 2015년 249건, 2016년 229건, 2017년 240건, 2018년 202건으로 조사됐으며, 전남은 2014년 244건, 2015년 280건, 2016년 298건, 2017년 326건, 2018년 33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시텔 공동 냉장고 뒤진 30대 여성 '배가 고파서...'

상대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시텔 공동 냉장고를 뒤지던 30대 여성이 고시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에 살고 있는 A(여·30)씨가 공동 주방 냉장고의 음식물을 뒤지고 있는 것을 고시텔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배는 고프는데 돈이 없어 냉장고를 뒤졌다"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고시텔 주인은 "한 두번도 아니고, 자주 냉장고에 넣어 둔 개인 음식이 없어져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가 경미하고 큰 피해가 없었는 점을 고려해 경미 범죄처분위원회에 회부한 뒤 추후 취업 등을 앞선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  |                         |                            |  |
|---|---------------|--|-------------------------|----------------------------|--|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br><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               |  |                         |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br>최저매각가격<br>[단위:원]  | 비고   |
| 2019타경 6940   | 3             | 동소 404-13 2865㎡<br>동소 404-14 436㎡ [물건번호3: 현황진, 매각대상토지위의 전지매각 제외]   | 답                       | 75,923,000<br>75,923,000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 8946   | 1             | 나주시 다도면 팔산리 650 326㎡<br>동소 651 530㎡ 제1의 창고 108 2㎡<br>동소 651 9 75㎡ 제1의 창고 297 7㎡<br>나주시 다도면 다도리 1473 117㎡ 부속건물<br>공장 153㎡ 제1의 기중 202 9㎡ [공방상<br>목욕, 1,2차상승소, 하난사, 계로목욕, 1,2차국<br>가유사의 인접필지다도면상리 1330-2번지<br>포함해서 3필지 이상에 소재함] | 창출지<br>창출지<br>창출지<br>창고 | 184,288,200<br>184,288,200 | 일괄매각, 제1의 창고, 창출지인 다도면 방산리 33509번지, 651-1번지 지상에 소재함 포함매각 |
| 2019타경 62179  | 1, 2, 3, 4, 5 | 영암군 용면 용지리 476-1 36㎡<br>동소 477-1 2598㎡ [이동 가능한 농산물 저장<br>창고 [단축역 9.9㎡] 및 양양군 소유 의 우리마을<br>소규모 수습 시설 [단축수 도 시설 역 7㎡, 물탱크<br>15톤] 은 각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에 소재한<br>수목매각 제외]  | 전<br>답<br>전             | 68,224,000<br>68,224,000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목축5원 환경정밀부도로                             |
| 2019타경 64816  | 1             | 동소 482-4 53㎡ [현황진 및 일부도로]  | 전                       | 1,272,000<br>1,272,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19타경 66154  | 1             | 동소 497-1 3183㎡ [현황진 및 도로, 연교 이상<br>분묘 3기 소재, 매각대상 토지에 소재한 수목매<br>각 제외]   | 전                       | 85,941,000<br>85,941,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19타경 67143  | 1             | 동소 533-1 1767㎡ [농지취득자격증명]  | 전                       | 70,091,000<br>70,091,000   | 일괄매각, 매각대상토지 매각대상 토지                                     |
| 2019타경 67280  | 1             | 북구 삼각동 87-1 9322㎡ [현재 일부 축산, 이<br>전 시 지분 1586/9322 전 부, 동축산경계 부근 근<br>교미상 분묘 소재, 정황하위 지 지변할 인출할 요<br>동소 570-7 222㎡ [김철동 지분 1/4 전 부]<br>지 분매각, 공유 자 유 선매수권 행사 시 식물 1회 로<br>제한, 토지인매각]   | 임야<br>대                 | 17,446,000<br>17,446,000   | 지분매각, 공유 자 유 선매수권 행사 시 1회로 제한                            |
| 2019타경 7219   | 1             | 정성군 삼계면 사항리 331-7 198㎡<br>정성군 삼계면 사항리 26 99 20㎡ [간절지<br>분구 조가 래 비 지 분 이 나 출 래 비 지 분 위 역 1.7<br>-1.8m 경도 농 역 이 란 관 지 분 지 분 조 각 ] 제 1 의<br>화장실, 창고 등 29 2㎡   | 대<br>대                  | 155,600,800<br>155,600,800 | 일괄매각, 제1의 창고 포함  |
| 2019타경 9888   | 1             | 북구 제봉동 266 4촌 101동 401호 [충흥동<br>프라임이나버넌스] 84 2808㎡   | 대                       | 179,000,000<br>179,000,000 | 오피스텔   |
| 2019타경 9970   | 1             | 광산구 송도동 150, 2촌 203호 210㎡  | 대                       | 575,000,000<br>575,000,000 | 콘크리트실  |
| 2019타경 67419  | 1             | 서구 윤전로 247, 11촌 1113호 1차평동, 스<br>타타워 21 84㎡  | 대                       | 43,000,000<br>43,000,000   | 콘크리트실  |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